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에너지절약협력과 서가람 과장(2110-3935), 최용균 주무관(3938)	

명동, 강남 등 문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단속 개시

-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따라 7월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 과태료부과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6.11일부터 시행 중인 「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」에 따라 7.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힘

* 6월은 계도·홍보기간으로 하고,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,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

○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,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

* (1회) 50만원 → (2회) 100만원 → (3회) 200만원 → (4회이상) 300만원

□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7.1(일)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임

○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, 서울시,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특히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, 강남일대에서 펼쳐지는 기초지자체*의 단속활동에 동참하였음

* 일시/장소 : 7.1(일) / 14:00~16:00 명동일대(중구), 강남일대(서초구, 강남구)

○ 명동, 강남은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지적받아 왔으며, 지식경제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6월동안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계도운동을 해왔음

□ 지식경제부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「국민발전소」 건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,

○ 지난 6.18일 화장품, 의류 등의 서비스업계는 "절전동참선포식"을 통해 운영매장(가맹점 포함)에서 냉방시 문 닫고 영업, 적정실내온도 유지,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자제 등의 자율적 참여를 선언하였음

□ 학생, 일반국민, 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(www.powersave.or.kr)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「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」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

○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 점검·단속토록 할 계획이며, 중·고교 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함께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명동 단속활동에 참여한 지식경제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"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,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「국민발전소」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,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"이라고 밝힘

첨부 1. 명동, 강남지역 개문냉방영업 점검·단속 계획
2. 전력과소비 시민신고제도

참고 1 명동, 강남지역 개문냉방영업 점검·단속 계획

□ 추진배경

○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6월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되고 7.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명동, 강남지역의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해 경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

□ 점검개요

○ 일 시 : '12. 7. 1(일) 14:00~16:00
○ 장 소 : 명동일대(명동역 6번출구 집결), 강남일대(강남역 11번출구 집결)
○ 참석기관
(지자체) 중구(명동), 강남구, 서초구(강남), 서울시
(정 부) 지식경제부, 국무총리실
(공기업) 에너지관리공단

* 강남구는 7.1일 10~16시까지 자치센터 직원포함 135명(50개조)이 강남구 전역 집중단속 실시

□ 주요 활동 사항

○ 지자체와 각 기관 합동으로 점검조를 편성하여 주요 거리를 순회하고 개문냉방금지 및 대형건물 적정온도준수 점검 및 단속 실시
-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

□ 세부 추진 계획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20 (20')	집결, 조편성, 홍보물배포, 점검 방법 설명 등	집결장소: 명동역 6번 출구 강남역 11번 출구
14:20~15:50 (90')	점검활동 *리플렛 배포,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	참석자 전원
15:50~16:00 (10')	정리	명동역 6번 출구 앞 강남역 11번 출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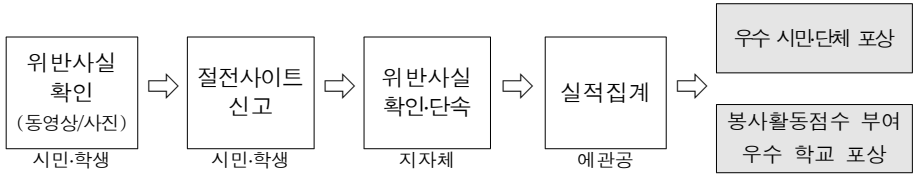
참고 2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제도

□ 개요

○ 하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절전문화 확산이 절실

○ 시민단체와 학생봉사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과 문 열고 냉방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하는 시스템 마련

□ 신고제도 체계



* 에관공 절전사이트 : www.powersave.or.kr

□ 조직 구성

○ **(시민단체)** 자체 점검 및 신고 활동 실시(온도계지급, 점검법교육 등 에관공협조)
* 시민단체 :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, 새마을운동중앙회, 에너지시민연대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,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
** 일반시민도 신고 가능

○ **(중·고생)** 에관공 지역본부 직원과 4인 1조 구성(직원 2명+학생 2명)
* 중·고생은 청소년 자원봉사홈페이지(www.dovol.net)를 통해 모집선발
학교별 사전교육 후 실제 활동은 여름방학기간 중 실시(7월중순)

□ 포상 내용

○ 점검활동을 한 중·고생에 대해 봉사점수를 부여하고, 참여 및 신고 실적 우수 학교와 시민단체에 대해 포상 추진